

이용대 혼복·남북 36분만에 2승

광주세계대학배드민턴 단체 한국 우승
남자단식 이동근 끈질긴 승부로 역전승

한국이 2012 광주세계대학배드민턴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8일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세계대학배드민턴대회 중국과의 결승에서 3-0으로 완승을 거두며 단체전 챔피언이 됐다.

2경기로 치러진 남자단식이 결승전의 백미였다.

한국은 이용대와 김소영이 출전한 혼복식에서 세트스코어 2-0(21-12 21-10)으로 이기며 1승을 먼저 가져왔다. 20분 만에 첫 경기가 마무리 됐다.

2경기는 이동근과 중국의 호웨이 티안이 맞붙은 남자 단식, 호웨이의 적극적인 공세로 경기 시작과 함께 0-4가 됐다.

5번째 랠리 만에 1점을 만든 이동근은 6-8까지 점수를 좁혀갔다. 하지만 9점 이후 주가 득점에 실패하며 1세트는 9-20으로 끝났다.

중국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됐던 경기였지만 이동근이 2세트 첫 점수를 가져가며 반격에 나섰다.

5-1까지 앞서나갔던 이동근이 구석을 찌르는 호웨이의 공격에 5-5로 동점을 허용했다. 이동근이 침착하게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며 6-5로 리드를 잡은 뒤 21-19로 승리를 가져오며 승부를 3세트까지 끌고 갔다.



이동근 선수

는 22-20으로 끝났다.

남자단식까지 가져간 한국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와 김기정을 앞세워 남자복식 승부에 나섰다.

젠 라-카이 옌을 상대로 일방적인 승부를 펼친 이용대와 김기정은 16분만에 1세트와 2세트를 모두 21-8로 마무리 하면서 한국의 단체전 우승을 확정지었다. 일본과 대만은 공동 3위에 올랐다.

대회 4일째인 9일부터는 개인전 경기가 치러진다.

단체전 우승을 장식한 이용대와 이용근도 각각 남자복식과 남자단식에서 대회 2관왕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2광주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한국대표팀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터키 여자배구 김연경

28득점 활약... 팀은 패배

터키 여자배구에서 활약하는 '거포' 김연경(26·페네르바체)이 올 시즌 최다인 28득점을 올리며 맹활약했다.

김연경은 8일(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 부르한 펠레크홀에서 열린 바키프방크와의 경기에서 서브에이스 2개를 포함해 28점을 터뜨렸다. 공격 성공률은 47%를 기록했고 리시브 성공률도 55%로 공수에서 만점 활약을 펼쳤다.

이날 바키프방크의 주포로 활약한 일본 대표 기무라 사오리(20득점)와의 '한·일 스파이커' 자존심 대결에서도 관전승했다.

그러나 김연경의 활약에도 페네르바체는 세트스코어 2-3(27-25 19-25 27-25 18-25 11-15)으로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연합뉴스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10·11일 동림다목적체육관

2012 광주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가 10·11일 열린다.

광주시와 광주시생활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중·고등부 축구 80개 클럽, 농구 60개 클럽의 청소년 1500여명이 참가해 대결을 벌인다. 농구는 동림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되며 축구는 동산체육공원 등 4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우승팀과 선수에게는 광주시교육감 및 동·서부 교육장상과 생활체육회장상이 수여된다.

한편 클럽대항 대회는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으로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광주에 거주하는 13~19세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시아시리즈 개막... 홍성흔 2루타

8일 오후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12아시아시리즈 한국 롯데 자이언츠와 호주 퍼스 히트와의 경기. 1회초 2사 1루에서 롯데 홍성흔이 1타점 우중간 2루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vs 강원

‘단두대 매치’

11일 광주서 ‘K리그 강등’ 운명의 대결

주말 광주의 운명이 결정된다.

광주 FC가 오는 11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강원 FC와 2012 K리그 39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뒷심부족으로 강원에게 밀려 사실상 최하위로 내려앉은 만큼 광주에게는 운명의 한판이다.

그들 B에 속한 광주는 스플릿 시스템 돌입 이후 치른 8경기에서 2승3무3패(승점 36)를 기록하며 15위에 랭크됐다. 그나마 거둔 2승도 상주의 몰수승으로 얻은 승리다.

반면 광주와 함께 강등권 후보로 꼽히던 강원도 최근 연승행진을 달리며 승점 38점을 채웠다. 13위 전남을 2점차로 추격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상주의와의 한 경기가 남아있는 만큼 광주와의 승점 차는 사실상 5점이다.

이번 맞대결에서 강원이 승점 3점을 더 확보한다면 광주로서는 뒤집기가 불가능한 위기에 몰리게 된다.

운명의 승부를 앞두고 광주는 마지막 막이라는 절박함을 안고 전장에 나선다.

광주는 38라운드 상대가 상주였기 때문에 지난 주 경기를 쉬었다. 선수들은 인천전이 끝난 뒤 강도높은 훈련을 진행하며 스플릿 리그 첫 승을 위한 재정보

를 했다.

광주는 경쟁력 훈련을 위해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인 선수들로 베스트 11을 구성했다. 포메이션 변화에 따른 전술훈련도 끝마친 상태다.

강원전 상대전적은 2승2무1패.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는 한 번도 패를 기록하지 않았다. 홈팬들 앞에서 안방불패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지난 스플릿 리그 6경기에서 평균 1.16득점을 올렸다. 지난 인천전에서는 박정민이 프로 데뷔 골을 찼고, 이용의 가세와 함께 침묵했던 세트피스 득점에도 성공했다.

임대 신분인 지쿠(포항)와 웨슬리(전남)가 7득점하며 맹활약하는 등 강원도 최근 3경기에서 11골을 몰아넣으며 막강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는 웨슬리와 김진환이 경고누적으로 엔트리에서 빠진다.

광주는 강원전을 시작으로 20일 동안 6경기를 치러야 한다. 강행군이 기다리고 있지만 가장 큰 산은 역시 강원이다.

광주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강원을 상대로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에 축구팬들의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고양 원더스 허민 구단주 일구상 대상

최고 타자상 박병호

최고 투수상 장원삼

국내 첫 독립야구단인 고양 원더스의 허민 구단주가 일구대상을 받는다.

한국 프로야구 OB회인 사단법인 일구회가 8일 2012 일구상 11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독립야구단을 창단해 야구인들에게 희망을 준 허민 구단주가 일구대상 수상자가 됐고, 2012시즌 타자 3관왕인 넥센의 박병호와 삼성의 2연패를 이끈 다승왕 장원삼은 각각 최고 타자상과 최고 투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방출의 아픔을 딛고 넥센의 톱타자로 자리한 광주야구 출신의 '신인왕' 서건창(넥센)은 신인상, 입단 10년 만에 12승을 수확한 두산 노경은이 의지노력상을 받는다.

지도자상 수상자는 롯데를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시킨 양승호 전 감독으로 결정됐다.

NC 다이노스가 프런티어스, 덕수고 정윤진



허민 구단주

감독이 아마지도자상, 22년 경력의 베테랑 최규순 KBO 심판이 심판상, 재일교포 교교야구팀을 이끌며 한국 야구 발전에 기여한 한재우 재일야구협회 전 회장이 공로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올 시즌 일본 성공적으로 일본 무대에 정착한 오릭스의 이대호는 특별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2 일구상 수상자 명단

▲일구대상= 허민 고양원더스 구단주 ▲최고타자상= 박병호(넥센) ▲최고투수상= 장원삼(삼성) ▲의지노력상= 노경은(두산) ▲신인상= 서건창(넥센) ▲특별공로상= 이대호(오릭스 버펄로스) ▲지도자상= 양승호 전 롯데 감독 ▲심판상= 최규순 심판위원 ▲프런티어스= NC 다이노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 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몰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과묵한맛집**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광역시 오광주**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맛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